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6. 10. 15. (목) 08:00				
담당 부서	농업기획팀	책임자	팀장	이혜진	(031-324-9101)
	농업기획팀	담당자	주임	김기복	(031-324-9105)

제주의 돌과 흙으로 쌓은 밭담, 국립농업박물관 최초 재현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 농업유산학회 관계자 등과 함께 완공식 개최-

<'제주밭담' 재현 개요>

· 제주밭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호(2013), FAO 세계중요 농업유산(2014) 등재**

· 재현위치: 국립농업박물관 다랑이밭 일부 구간, 약180㎡

· 재현방법: 제주도 자연석(현무암 약 96톤)과 흙을 원물 형태 그대로 이송하여, 제주도 돌챙이(제주특별자치도 명장)의 전통적 기술로 축조

* **제주 현무암과 흙을 그대로 옮겨와 장인들이 전통 방식으로 축조한 최초 사례**

· 관람안내: 상시 무료 관람

* 소개공간 **'지키는 돌, 이어지는 유산'**: 중앙홀, 10.15.(목)~11.15.(일)까지 운영







□ 국립농업박물관(관장 오경태)은 제주 특유의 농업환경과 농업문화를 보여주는 '제주밭담'을 박물관 야외 다랑이밭에 재현하고, 10월 15일 완공식을 개최했다.

○ 완공식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영상 축사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유산학회 관계자 등 10명 이상이 참석해 제주밭담

재현 성과와 추진 과정을 공개했다.

□ 제주밭담은 제주도의 거센 바람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돌을 쌓아 만든 농업시설로, 척박한 자연환경 속에서 농사를 이어온 제주 농업인의 지혜와 삶이 담긴 농업유산이다.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가중요농업유산 제2호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에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

□ 국립농업박물관은 제주밭담의 고유한 형태와 전통 축조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제주 현지에서 현무암 약 96톤과 흙을 옮겨와 박물관 야외 다랑이밭 약 180㎡ 구간에 밭담을 조성했다.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현지의 돌과 흙을 그대로 사용하고, 돌챙이(석공) 명장의 전통 기술로 축조한 최초의 사례다.

* 돌챙이: 제주에서 돌을 다루고 돌담을 쌓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

□ 국립농업박물관은 관람객들이 제주밭담의 재현 과정과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박물관 중앙홀에서 소개공간 ‘지키는 돌, 이어지는 유산’을 운영한다.

○ 소개공간에서는 제주밭담 재현 과정을 담은 영상과 제주 돌챙이가 축조에 사용한 도구, 밭담 스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박물관은 국민의 관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작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발굴·관리하고 있다. 제주밭담 재현 역시 이러한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야외공간을 개선하고 공간의 가치를 높였다.

□ 오경태 국립농업박물관장은 “제주밭담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삶을 일궈온 제주 농업인들의 삶의 지혜가 담긴 소중한 농업유산”이라며, “제주 밭담을 시작으로 농업유산을 박물관에 재현하여 국민들이 우리 농업유산의 특징과 가치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관련 사진**



제주 돌챙이 조환진 명장이 전통 방식으로 제주밭담을 쌓고 있다



제주 현지에서 옮겨온 현무암과 흙으로 국립농업박물관 야외 다랑이밭에 재현한 제주밭담 전경